수능 찌라시를 믿다니...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수능 앞두고는 별 게 다 불안하죠. 뭔가 비싼 학원, 비싼 과외 받는 학생들은 비밀리에 찌라시에 관한 뭔가를 배우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관련 주제를 따로 공부할 여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면... 다음 자료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수능용이 아니라 PSAT 수험생 대상으로 만든 자료인데, 마침 찌라시로 떠도는 게임이론 관련 지문을 정리해놨어서 공개합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이제 2X2 매트릭스와 관련된 좀 더 흥미롭고 문제를 몇 개 살펴보고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문093, 문094에 소개된 게임이론은 언제든 다른 형태로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도해 게임이론〉 등을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 적 유전자〉에도 게임이론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시험과 상관없이 일생에 한 번쯤 꼭 읽어 볼만 한 책입니다!)

문097~099는 따끈따끈한 2018학년도 언어이해 기출문제인데, PSAT 언어논리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2X2 매트릭스가 이런 경우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길 바라는 마음에 무리하게 넣어봤습니다. ㅋ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문09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13인29]

우리의 선택은 상대방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상대방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전략을 'D전략'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낮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전략을 'S전략'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두 사람 갑, 을이 각각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두 사람은 P와 Q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려하고 있다. 갑은 을이 P를 선택할 경우 Q보다 P를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이익을 얻고, 을이 Q를 선택할 경우에도 Q보다 P를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이익을 얻는다면, P를 선택하는 것이 갑의 D전략이 된다. 또한 을이 P나 Q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갑은 P보다 Q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낮은 이익을 얻는다면, Q는 갑의 S전략이 된다. 이를 일상적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자.

두 스마트폰 회사가 있다. 각 회사는 TV 광고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각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에는 TV 광고를 자제하는 전략과 대대적으로 TV 광고를 하는 공격적인 전략 두 가지가 있다. 두 회사 모두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회사는 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다. 한 회사가 광고를 하는데 다른 회사는 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한 회사는 6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광고를 하지 않은 회사의 매출은 대폭 감소하여 단지 2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두 회사가 모두 경쟁적으로 TV 광고를 할 경우 상대방 회사에 비해 판매를 더 늘릴 수 없는 반면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각자의 순이익은 3억 원에 머문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자. 어떤 지역에 경쟁관계에 있는 두 병원이 있다. 각 병원에는 우수한 의료장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현재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다. 각 병원은 값비싼 첨단 의료장비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을 더 신뢰하여 감기만 걸려도 첨단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달려간다. 한 병원이 다른 병원에는 없는 첨단 장비를 구비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첨단 장비를 갖춘 병원은 총수입이 늘어나며, 첨단 장비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4억 원의 순이익을 확보하여 이전보다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첨단 장비를 갖추지 못한 병원은 환자를 많이 잃게 되어 순이익이 1억 원에 머물게 된다. 한편 두 병원이 모두 첨단 장비를 도입할 경우, 환자는 반반씩 차지할 수 있지만 값비싼 장비의 도입 비용으로 인하여 각 병원의 순이익은 2억 원이 된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① 각 회사의 광고 자제와 각 병원의 첨단 장비 구입은 S전략이다.
② 각 회사의 공격적인 광고와 각 병원의 기존 장비 유지는 S전략이다.
③ 각 회사의 공격적인 광고와 각 병원의 기존 장비 유지는 D전략이다.
④ 각 회사의 공격적인 광고와 각 병원의 첨단 장비 구입은 D전략이다.
⑤ 각 회사의 공격적인 광고는 D전략이고, 각 병원의 첨단 장비 구입은 S전략이다.

문094. 다음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과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기업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g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오염 피해액이 d만큼 발생한다고 하자. 그러나 기업이 위반을 할 때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적발되어 벌금으로 p를 납부해야 하며, p는 정부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경우 비용 c를 지불한다.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때 당국이 감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오염 피해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래의 표에서 각 칸의 첫째 값은 기업의 이익, 둘째 값은 정부의 이익을 뜻하며, g, d, p, c>0이다.

정부 / 기업	규제함	규제 안 함
위반함	-p+g, p-d-c	g, -d
위반 안 함	0, -c	0, 0

기업과 정부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한다.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는 규제를 하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 기업은 위반을 하지 않고, 기업이 위반하지 않으면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반을 하게 되고,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과 정부의 의사 결정이 어느 한 상태에서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예비09추리24]

<보 기>

ㄱ. p>g　　ㄴ. p>c　　ㄷ. d>c　　ㄹ. g>d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문093 해설

2문단을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두 회사 이름을 갑, 을로, 각 경우에 따른 갑의 순이익 a와 을의 순이익 b는 (a, b)로 나타내겠습니다.)

갑 \ 을	광고X	광고O
광고X	(5, 5)	(2, 6)
광고O	(6, 2)	(3, 3)

1문단의 설명에 이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갑은 을이 광고O를 선택할 경우 광고X일 때의 2억 원보다 광고O일 때의 3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이익을 얻고, 을이 광고X를 선택할 경우에도 광고X일 때의 5억 원보다 광고O일 때의 6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이익을 얻는다면, **광고O**를 선택하는 것이 갑의 D전략"이 됩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광고O를 택하는 것이 D전략이고요.

3문단을 매트릭스로 나타내고, D전략을 따져보면 구입O가 서로에게 D전략입니다. 이를 토대로 선지를 살펴보면 ④가 정답입니다.

갑 \ 을	구입O	구입X
구입O	(2, 2)	(4, 1)
구입X	(1, 4)	(4↓, 4↓)

문094 해설

상자 안의 글은 결국 2X2 매트릭스 설명이었네요. 각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상자 아래의 설명을 하나하나 적용해보겠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한다.
: 유리한 의사결정은 이익이 높은 경우를 택한다는 뜻이겠네요.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는 규제를 하고,
: 기업이 위반할 때, 정부는 규제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이익이라네요. 따라서 p-d-c>-d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는 p>c로 정리되므로 ㄴ은 참입니다.

기업 \ 정부	규제함	규제 안 함
위반함	-p+g, p-d-c	> g, -d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정부가 규제를 하면 기업은 위반을 하지 않고,

: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기업은 위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이익이겠네요. 따라서 -p+g<0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는 g<p로 정리되므로 ㄱ은 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이네요! 답은 찾았지만 계속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 정부	규제함
위반함	-p+g, p-d-c
위반 안 함	0, -c

기업이 위반하지 않으면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 기업이 위반하지 않을 때, 정부는 규제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이익이겠네요. 따라서 -c<0, 즉 c>0이 성립해야 합니다.

기업 \ 정부	규제함	규제 안 함
위반 안 함	0, -c <	0, 0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반을 하게 되고,

: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을 때, 기업은 위반하지 않는 것보다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겠네요. 따라서 g>0이 성립해야 합니다.

기업 \ 정부	규제 안 함
위반함	g, -d
위반 안 함	0, 0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하게 된다.

: 첫 번째 상황으로 돌아왔네요. ㅋ

재미있는 문제였죠? 지문에 주어진 조건을 따라 집요하게 따라가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095~09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3인19~20]

우리는 지식을 얻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 만일 우리의 방법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노심초사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방법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그 방법이 미래에도 계속 참된 앎을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귀납이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 경험들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법이다. ⓐ자연이 한결같다면 귀납의 신뢰성은 보장된다. 흄은 자연이 한결같다는 것을 확신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하지만 라이헨바흐는 귀납이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 어떤 대안 방법들보다 낫다는 점은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간단하다. 자연은 한결같거나 한결같지 않다. 자연이 한결같다면 귀납은 확실히 신뢰할 만하고, ⓑ자연이 한결같지 않다면 귀납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제 점을 치는 방법처럼 귀납과는 다른 대안 방법을 채택할 경우 어떻게 될까? 불행히도 ⓒ자연이 한결같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대안 방법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이 한결같을 경우, 귀납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보장되지만 그 이외의 방법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귀납이 우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번에는 자연이 한결같지 않아서 귀납이 때때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라이헨바흐는 ⓔ귀납이 신뢰할 만하지 않을 경우 대안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연이 한결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방법들 중 하나가 현재까지는 아주 잘 작동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그 방법이 미래에도 계속 작동될 것이라는 귀납이 결국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방법은 장차 참된 앎을 산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귀납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면 점쟁이의 방법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를 통해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한결같지 않다면 대안 방법들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그래서 ⓖ자연이 한결같지 않을 경우, 귀납이든 대안 방법이든 모두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 만약 귀납을 채택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잃지 않는다. 따라서 귀납을 채택하면 얻는 것뿐이며 잃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한결같거나 귀납이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자연이 한결같다는 것을 미리 가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귀납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지식을 확장하는 최선의 추론 방법임을 보이고자 했다.

문095. 윗글의 ⓐ~ⓖ에 대해 바르게 기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와 ⓒ가 참이면 ⓓ도 참이다.
ㄴ. ⓑ와 ⓔ가 참이면 ⓕ도 참이다.
ㄷ. ⓔ와 ⓕ가 참이면 ⓖ도 참이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096. 윗글에 나온 라이헨바흐의 논증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자연이 한결같을 경우, 대안 방법들도 귀납만큼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밝힌다.
ㄴ. 자연이 한결같지 않을 경우, 대안 방법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밝힌다.
ㄷ. 자연이 한결같지 않을 경우, 대안 방법들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면 귀납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095~096 지문 해설

지문 내용이 길지만 2X2 매트릭스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귀납	대안 방법들
자연이 한결같음	신뢰할 만함	신뢰할 만하지 않음
자연이 한결같지 않음	신뢰할 만하지 않음	신뢰할 만하지 않음
합계	참된 앎 얻음 ∴ 귀납이 최선의 추론	〉 얻는 것 없음

문095 해설

논리적 관계를 묻는 문제는 선지를 보며 필요한 주장만 쏙쏙 비교해보면 됩니다.

ㄱ. ⓐ와 ⓒ가 참이면 ⓓ도 참이다. O

ⓐ**한결→귀납 신뢰**, ⓒ**한결→~대안 신뢰**

ⓓ**한결→(귀납 신뢰∧~대안 신뢰)**

ⓓ≡ⓐ∧ⓒ이므로 ㄱ은 적절합니다.

학생 : ⓒ를 **~(한결→대안 신뢰)**로 기호화하면 안 되나요?

선생 : 이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해설하는 분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차근차근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연이 한결같다고 **가정**하더라도'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은 '자연이 한결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즉 조건문의 전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결→** 이렇게 기호화할 수 있죠?

또한 문맥상 "신뢰할 만하지 않다 =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가 다 같은 뜻이므로, 이를 모두 **~신뢰**로 기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놓치면 마치 ⓒ의 서술어가 마치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읽혀서 잘못 기호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ㄱ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ㄴ. ⓑ와 ⓔ가 참이면 ⓕ도 참이다. O

: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한결→~귀납 신뢰, **ⓔ~귀납 신뢰→~대안 신뢰**, **ⓕ~한결→→~대안 신뢰**

ㄷ. ⓔ와 ⓕ가 참이면 ⓖ도 참이다. X

: ⓔ와 ⓕ는 ⓖ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귀납 신뢰→~대안 신뢰, **ⓕ~한결→→~대안 신뢰**, **ⓖ~한결→~귀납 신뢰∧~대안 신뢰**

참고로 ⓑ와 ⓕ가 참일 때 ⓖ가 참입니다.

문096 해설

정답이 ③인데, 이를 놓고 행정고시 사랑에서 수십 개의 댓글로 격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논점은 단순했습니다.

학생1: ㄱ은 **한결→대안 신뢰**인데, 이는 ⓒ**한결→~대안 신뢰**와 양립가능한 관계다. 따라서 논리적 관점에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비판이려면 ⓒ의 부정인 **한결∧~대안 신뢰**가 제시되어야 한다. ㄴ과 ⓕ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학생2: A→B와 A→~B가 양립가능한 관계인 것은 맞다. 하지만 독해 문제를 너무 논리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독해문제다. 형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독해 문제에서는 A→~B에 대해 A→B가 부정(모순)은 아니어도, 내용적으로 비판/약화할 수 있다. ㄴ과 ⓕ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입장 모두 큰 그림을 놓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ㄱ과 ㄴ은 ⓒ와 ⓕ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계**를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라이헨바흐의 주장은 최선의 추론으로서 귀납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귀납을 채택하면 얻는 것뿐이며 잃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이고요. 이는 2X2 매트릭스의 합계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라이헨바흐의 논증을 비판하려면, 대안 방법들도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ㄱ, ㄴ이 참이라면 합계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른 주장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면 ㄷ은 기존의 합계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귀납	대안 방법들
자연이 한결같음	신뢰할 만함	**ㄱ. 신뢰할 만함**
자연이 한결같지 않음	신뢰할 만하지 않음	신뢰할 만하지 않음
합계	참된 앎 얻음 = 참된 앎 얻음 ∴ ~~귀납이 최선의 추론~~	

	귀납	대안 방법들
자연이 한결같음	신뢰할 만함	신뢰할 만하지 않음
자연이 한결같지 않음	신뢰할 만하지 않음	**ㄴ. 신뢰할 만함**
합계	참된 앎 얻음 ? 참된 앎 얻음 ∴ ~~귀납이 최선의 추론~~	

이 문제를 푼 발상을 잘 기억해두면, 뒤이어 나올 2018학년도 LEET 언어이해 베나타 논증 문제를 똑같은 구조로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문에 “흄은 자연이 한결같다는 것을 확신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라고 한 문장으로 나온 내용이 2016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A형 22~26번 지문으로 좀 더 자세하게 출제됐습니다.

>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
>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수능, PSAT, LEET 시험지를 같이 펼쳐놓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참고하는 듯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출제진이 겹쳐서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ㅋ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097~10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이해22~25]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만,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출산은 한 인간 존재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 다른 인간을 존재하게 하여 위험에 처하게 만들 때는 충분한 이유를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출산이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기르는 즐거움과 아이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이를 기르는 것은 괴로운 일이며 아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과 낳지 않는 것 중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철학자 베나타는 이렇게 경험에 의거하는 방법 대신에 쾌락과 고통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논리적 분석을 이용하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논증을 제시한다.

베나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풍요로워지긴 하겠지만, 만일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잃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잃을 누군가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존재하게 됨으로써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심각한 피해로 고통을 받는다. 이 주장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부유하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혜택은 그들이 겪게 될 해악을 능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 것이다. 그러나 베나타의 반론은 선의 부재와 악의 부재 사이에 비대칭이 있다는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 고통 같은 나쁜 것의 부재는 곧 선이다. 그런 선을 실제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더라도 어쨌든 그렇다. 반면에 쾌락 같은 좋은 것의 부재는 그 좋은 것을 잃을 누군가가 있을 때에만 나쁘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은 존재함에 비해 진짜 혜택인 반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손실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존재의 쾌락은 아무리 커도 고통을 능가하지 못한다. 베나타의 이런 논증은 아래 <표>가 보여 주듯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가 낫다고 말한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표>

시나리오 A : X가 존재한다	시나리오 B : X가 존재하지 않는다
(1) 고통이 있음 (나쁘다)	(2) 고통이 없음 (좋다)
(3) 쾌락이 있음 (좋다)	(4) 쾌락이 없음 (나쁘지 않다)

베나타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선의 부재와 악의 부재 사이에 비대칭이 있다는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첫 번째 비판을 위해 천만 명이 사는 어떤 나라를 상상해 보자. 그중 오백만 명이 끊임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오백만 명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를 본 천사가 신에게 오백만 명의 고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간청한다. 신도 이에 동의하여 시간을 거꾸로 돌려 불행했던 오백만 명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시 창조했다. 하지만 베나타의 논리에 따르면 신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천만 명이 사는 나라를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이 천만 명을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하는 식으로 천사의 간청을 받아들이면 천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다. 이 사고 실험은 베나타의 주장과 달리 선의 부재가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생명들을 빼앗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크다.

첫 번째 비판은 나쁜 일의 부재나 좋은 일의 부재는 그 부재를 경험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베나타의 전제를 받아들였지만, ㉡두 번째 비판은 그 전제를 비판한다. 평가의 용어들은 간접적으로라도 사람을 언급함으로써만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부재가 그 부재를 경험할 주체와는 관계없이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베나타의 이론에서는 '악의 부재'라는 표현이 주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 비존재의 맥락에서는 나쁜 것을 피할 개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베나타의 주장이 옳다면 출산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으며 출산에 관한 도덕적 성찰은 반드시 출산의 포기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준 부모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주장의 정당성은 비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문097. 베나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아이를 기르는 즐거움은 출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③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고통보다 행복이 더 많을 것 같은 사람도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⑤ 좋은 것들의 부재는 그 부재를 경험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조차도 악이 될 수 있다.

문098. 베나타가 ㉠에 대해 할 수 있는 재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전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없다.

②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인지 고통에 시달리는 삶인지 구분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③ 삶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은 삶을 새로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과 다르다.

④ 경험할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부재하게 된 쾌락은 이미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 부재하는 쾌락을 능가한다.

⑤ 어떤 사람이 다른 잠재적 인간에게 존재에 따를 위험을 안겨주는 문제와 어떤 사람이 그런 위험을 스스로 안는가 하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문099. ㉡이 <표>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2)와 (4) 모두 좋다고 생각한다.

② (2)와 (4) 모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③ (2)는 좋지만 (4)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④ (2)는 좋지만 (4)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⑤ (2)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4)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문100. <보기>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음 두 세계를 상상해 보자. 세계 1에는 갑과 을 단 두 사람만 존재하는데, 갑은 일생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쾌락은 조금만 경험한다. 반대로 을은 고통을 약간만 겪고 쾌락은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다. 그러나 세계 2에는 갑과 을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 그들의 고통이 없다는 것은 좋은 반면, 그들의 쾌락이 없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베나타에 따르면 세계 2가 갑에게만 아니라 을에게도 언제나 분명히 더 좋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을에게는 세계 1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①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언제나 좋은 것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쾌락은 단순히 고통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훨씬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고통의 없음은 좋기는 해도 매우 좋지는 않지만 쾌락의 없음은 매우 좋기 때문이다.

④ 인간은 고통이 쾌락에 의해 상쇄되지 않아 고통이 쾌락을 능가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이다.

⑤ 고통의 없음은 매우 좋지만 쾌락의 없음은 나쁘기는 해도 매우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097~100 지문 해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2X2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문 내에 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필고쳐 씀해도 됩니다. 2문단까지의 내용을 표에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	태어나지 않는 것
고통	⊖심각한 피해	⊕선(진짜 혜택)
쾌락	⊕풍요	0
합계	⊖쾌락<고통	⊕

3문단부터는 이에 대한 비판인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는 빠르게 읽고, 핵심을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 베나타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선의 부재와 악의 부재 사이에 비대칭이 있다는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첫 번째 비판을 위해 천만 명이 사는 어떤 나라를 상상해 보자. 그중 오백만 명이 끊임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오백만 명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를 본 천사가 신에게 오백만 명의 고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간청한다. 신도 이에 동의하여 시간을 거꾸로 돌려 불행했던 오백만 명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시 창조했다. 하지만 베나타의 논리에 따르면 신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천만 명이 사는 나라를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이 천만 명을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하는 식으로 천사의 간청을 받아들이면 천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다. 이 사고 실험은 베나타의 주장과 달리 선의 부재가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생명들을 빼앗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크다.

선의 부재는 2행 2열인데, 베나타는 나쁘지 않다고 한 반면 ㉠은 나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태어나는 것	태어나지 않는 것
고통	⊖심각한 피해	⊕선(진짜 혜택)
쾌락	⊕풍요	0
합계	⊖쾌락<고통	⊕

4문단은 아예 두 번째 열 자체 부정합니다. 태어나지 않아 무언가를 경험할 주체가 없는데, 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악의 부재'라는 표현이 주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강조한 것을 볼 때 1행 2열을 특히 비판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귀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나타의 주장이 옳다면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베나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보자는 거죠.

문097 해설

베나타의 생각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진 글이었죠? 지문전개에 따른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발문을 "베나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에서 "베나타에 대한 비판과 일치하는 것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빠르게 ⑤를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⑤는 베나타의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비판 "선의 부재가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쁠 수 있다"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실전적인 방법입니다. 선지를 하나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박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독해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문098 해설

㉠에 대한 문제가 따로 나왔으니 지문독해시 빠르게 읽은 구체적 사례를 천천히 다시 읽으며[1] 비판의 근거를 찾아 공격하면 됩니다.

㉠의 주장 : 선의 부재가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쁠 수 있다

㉠의 근거 : 천만 명을 존재하지 않게 하면 공포에 질릴 것

베나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을 논했는데, ㉠은 이미 태어난 사람을 없애는 것을 논했으므로 논점이 다르고, 따라서 무관한 비판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것은 ③입니다. (독해감각이 좋다면 지문을 읽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거나 사례의 어색함을 느꼈을 겁니다. 독해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③ 삶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은 삶을 새로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베나타)**과 다르다.

---

1) 능숙한 독자는 처음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을 천천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빠르게 읽습니다. 대신 같은 글을 두 번째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천천히 읽습니다. 뼈대를 만든 뒤 살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읽는 거죠.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

작성 : 이해황(『국어의 기술』 시리즈 저자)

문099 해설

㉡은 (2), (4)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②입니다. (해설이 너무 짧으니까 성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걱정되네요. 그래서 괜히 이런 잡소리로 두 줄 더 채워봅니다. 실전에서도 이렇게 풀면 충분하고, 또 이렇게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100 해설

<보기>는 '을'의 경우 태어나지 않는 세계 2보다 태어나는 세계1이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고통<<쾌락**이고요. 이와 같은 맥락은 ②입니다. (이 문항은 베나타의 주장 "존재의 쾌락은 아무리 커도 고통을 능가하지 못한다."(고통>쾌락) 매트릭스에서 '합계' 부분에 대한 비판 문제이기도 합니다.

§ 잡담 : 출제기관은 보도자료에서 "기출 문제나 사설 문제집을 푼 경험으로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도 최대한 방지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지문의 내용은 데이비드 베나타(David Benatar)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 출생의 폐해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Oxford University Press. 2007)와 관련이 있으나... 번역도 안 된 책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중 이 내용을 배경지식으로 갖고 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독해개념인 **2X2 매트릭스**를 기출 문제로 훈련한 경험이 있다면 비교적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겠죠. ㅋ

출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대한 베나타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하였다. 이 글을 통해 논리적 능력 외에 태어남 자체가 지니는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을 깨달아 법률가로서 지녀야 할 인본주의적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였다."라고도 첨언했는데...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는 수험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이 내용은 PSAT 언어논리 기본서 『독해개념 매뉴얼』(법률저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영리적 이용을 금합니다. 만약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려면 artofkorean@gmail.com 또는 010-4958-4005로 연락 바랍니다.